

'전주시 자원봉사 포럼' 개최

그린뉴딜 정책 맞춰 기후·생태계 위기 대응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모색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맞춰 에너지 절약운동과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운동, 도시숲 가꾸기 등 캠페인성 자원봉사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의욱)는 지난 5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를 해결할 자원봉사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전주시 자원봉사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린뉴딜 정책에 맞춰 기후와 생태계 위기에 대응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였다.

장우연 전주시정책연구소 연구원은 그린뉴딜 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해 살펴보면 에너지 절약운동, 제로 웨이스트 운동, 도시숲 가꾸기, 그린 리모델링 등을 중심으로 그린뉴딜 정책과 자원봉사를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로 웨이스트 운동은 일회용품 대신 두고두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사용을 권장하는 활동이다.

문오한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팀장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전주 시민원탁회의 결과를 소개하면서 전기사용 줄이기 실천, 플라스틱 규격화, 짧은 거리 걸어다니기, 제로 웨이스트 가게 활성화 등 캠페인성·참여형 자원봉사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임소형 전주·전북 알뜰맘 카페 회장은 '나무야 안아줄게 트리허그'와 '이시스크 챌린지' 등의 활동을 통해 전주시자원봉사센터와 더욱 연대해 나눔을 실천키로 했다. 또 장근범 작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5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를 해결할 자원봉사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전주시 자원봉사 포럼'을 개최했다.

가는 주민과 예술가, 전주시자원봉사센터가 함께해 도시공간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한 서노송예술촌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지정토론회도 진행됐다. 전현숙 자원봉사사이클 대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에너지 전환(단열시공, 태양광 설치, LED 조명 교체) ▲식습관 개선(채식위주 식단,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자원순환(플라스틱 포장재 및 재활용률 높이기) ▲나무심기(도시숲, 도시농업) 등의 활동을 강조했다.

박정석 전주시자원봉사센터장은 "그린 뉴딜정책에 맞춰 기후와 생태계 위기에 대응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에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을 때"라며 "자원봉사 전문가들의 소중한 경험과 식견을 모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윤순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박운에 자원봉사사이클 대표도 적극적 실천운동으로서의 자원봉사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황성진 소셜공작소(주) 대표는 재활용 가능한 용기를 넣으면 가격이 맞게 쿠폰을 주는 유럽의 '재활용자판기'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날 포럼은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황의욱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린 뉴딜정책에 맞춰 기후와 생태계 위기에 대응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에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을 때"라며 "자원봉사 전문가들의 소중한 경험과 식견을 모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 어진박물관' 실감나는 디지털 콘텐츠 구축한다

시, 문체부 '공립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체험존 조성 지원 공모사업' 선정

전주 어진박물관이 3D 맵핑 기술 등 첨단기술이 스며든 실감나는 공간으로 대변신한다.

전주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국비 약 5억원 등 총사업비 10억원을 들여 어진박물관에 실감형 콘텐츠를 구축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지원 사업'은 지역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새로운 박물관 전시 관람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람객들이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왕의 귀환, 조선의 왕을 만



나다'를 주제로 어진박물관의 어진실, 가마실, 기획전시실에 태조어진, 일월오봉도, 태조어진봉안반차도, 닥종이 인형 등 어진박물관 유물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하고, 인터랙티브 체험존을 조성한다.

구체적으로 어진실에 있는 '일월오봉도'는 파노라마형 고해상도 물입영상을 구현하고 전주정보영상산업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국형 효과음원DB를 활용하여 풍부한 사운드를 입힐 예정이다.

또 태조 어진모사 과정을 생생하고 섬세한 디지털 캔버스에 재현된다.

가마실의 반차도 재현 닥종이인형의 경우 작품 바닥에 3D 맵핑을 통한 입체영상이 구현되고 벽면에는 어진 봉안 반차도의 실감형 영상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기획전시실에서는 조선 왕조에 방편객의 얼굴 부분을 합성시키는 디지털 포토부스와 디지털 키오스크를 활용한 디지털 컬러링 체험존도 조성된다.

최라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국내 유일의 태조어진을 봉안한 어진박물관에서 가장 전통적인 전시 콘텐츠를 실감나는 디지털 콘텐츠로 만나보는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형 사회주택 사업시행자 공개모집

내달 25~26일 신청... 주거취약계층에 시세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임대

전주시가 다음 달 25~26일 민간임대주택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전주형 사회주택을 공급·운영할 사업시행자를 공개모집한다.

전주형 사회주택은 전주시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동으로 출자해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한 뒤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장기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이다.

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성을 확보하는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을 위해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는 ▲건물임대부 사회주택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등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건물임대부 사회주택

은 민간에서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시가 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이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시가 토지(건물)를 매입하면 민간에서 신축 또는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공모 자격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동으로 출자해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한 뒤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장기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단체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참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지참해 전주시청 주거복지과 사회주택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1-5246)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사업수행실적, 재정건전성, 사업수행 능력, 계획의 적정성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7년부터 ▲동안산동 청년 셰어하우스(57가구) ▲중화산동 여성안심 사회주택(157가구) ▲효자동 청년 주택(177가구) ▲삼천동 계층혼합형 주택(37가구) ▲서서화동 청년예술인 주택(187가구) 등 총 68가구의 사회주택을 공급했다.

김은주 전주시 주거복지과장은 "전주형 사회주택은 청년, 장애인, 고령자 및 1인 가구의 증가 등 주거수요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주택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전주시와 함께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울 사회적경제주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임직원, 코로나19 성금 1080만원 기탁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원장 방윤혁) 임직원들이 지난 5일 전주시청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성금 1,08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해 마련된 것으로, 시는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한 뒤 지역의 취약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달식에 참여한 방윤혁 원장과 한웅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노동조합 지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놓인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직원이 제안해 성금이 모금됐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임직원들이 지난 5일 전주시청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성금 1,080만원을 기탁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직원 대상 사랑의 헌혈운동 실시

전주시 공무원들이 동절기 혈액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헌혈운동에 동참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진선)는 오는 9일과 16일, 23일 3회에 걸쳐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전주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한다. 이번 헌혈운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혈액 수급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추진된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 헌혈 차량은 9일에는 전주시청으로, 16일에는 완산구청으로, 23일에는 덕진구청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헌혈운동을 진행한다.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다.

헌혈 참여를 원하는 자는 건강하고 안전한 헌혈을 위해 전날 과음·과로를 피하고 일정별 해당 장소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헌혈 참여자는 혈액검사, 혈압측정, 빈혈검사, 간기능 검사, B·C형 간염 검사, 매독항체검사, 에이즈검사 등 다양한 건강 검진으로 자신의 건강을 확인해볼 수 있으며, 헌혈증과 기념품 등을 받게 된다.

/김윤상 기자

건강한국 실현에 기여하는 세계 수준의 식품연구기관

한국식품연구원은 창의적 식품연구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① 식품 기능성 규명, 신소재·신공정 연구개발
- ② 식품 저장·유통·안전성 기술 연구개발
- ③ 전통식품의 세계화 연구개발
- ④ 식품 분석, 정보, 표준화 및 기반조성 연구개발
- ⑤ 정부, 민간, 법인, 단체 등과 연구개발 협력 및 기술용역 수탁·위탁
- ⑥ 식품 저장·유통·안전성 기술 연구개발
- ⑦ 전문인력 양성, 기술정책 수립 지원, 시험평가, 인증 등